

9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10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들 간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동아리는 역사를 탐구하기 위한 자율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아리 활동이 침체되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해결 방안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원 1: 토론 중심의 단조로운 활동으로 부원들의 흥미와 의욕이 저하되어 동아리 활동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부원 2: ㉠ 맞습니다. 토론을 통해 진지하게 역사를 탐구하는 것도 좋지만, 부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사회자: 토론 중심의 단조로운 활동 때문에 부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원 3: 토론 외에 정기적으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역사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어떨까요?

부원 4: 저는 역사 유적 답사를 정기적으로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정기적으로 역사 영화를 감상하자는 의견과 역사 유적 답사를 다니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방안이 더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부원 1: 역사 영화는 역사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 영화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면서 영화를 감상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부원 4: 역사 영화에는 허구적인 내용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영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고 그 자료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원 3: 역사 유적 답사에는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역사 영화 감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활동을 실행할 때의 어려움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군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좋을지 결정하겠습니다.

부원 1: 역사 영화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여쭙 보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원 4: ㉡ 역사 영화를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역사 유적 답사는 답사지 조사와 선정, 사전 답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원 2: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영화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정기적으로 역사 영화를 보는 활동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토의를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 ② 토의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시해 토의 주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 간의 감정 대립을 중재해 원만한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발언 순서를 지정해 토의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다.
- ⑤ 보충 질문을 통해 토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보기>의 ㉠~㉢와 관련지어 위 토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 동아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하고 있군.
- ② ㉠: 토론 위주의 활동으로 인해 부원들의 흥미와 의욕이 저하된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③ ㉡: 역사 영화를 보는 활동을 하자는 대안과 역사 유적 답사를 다녀오자는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군.
- ④ ㉡: 부원들의 역할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대안 선택의 준거로 삼고 있군.
- ⑤ ㉢: 정기적으로 역사 영화를 보는 활동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군.

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과거의 문제 해결 사례를 들어 동의하고 있다.
- ② ㉠: 대안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③ ㉡: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생각을 바꾸고 있다.
- ④ ㉡: 다른 대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 ⑤ ㉡: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4 ~ 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녹색 기술'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대부분 들어 보셨군요. 그럼, '청색 기술'이란 말은 들어 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들어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청색 기술'입니다. 녹색 기술이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이라면, 청색 기술은 오염 물질 자체를 배출하지 않기 위한 기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색 기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따름으로써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땅에 박혀 있는 이 파이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파이프를 이용한 장치를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인공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파이프를 가리키며) 이 장치를 이용하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1m³ 부피의 대기에서 하루 11.5ml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사용 없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땅에 박힌 파이프 속으로 공기가 모이면, 파이프가 박혀 있는 땅 속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 중의 수분이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이 물방울은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에어드롭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안 들이고도 깨끗한 물을 농작물에 댈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개발한 에드워드 리나커는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에 살고 있는 풍뎅이가 수분을 섭취하는 방식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색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청색 기술이 환경 오염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따르는 혁신적인 기술은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색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청색 기술'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 '녹색 기술'이란 말과 달리 '청색 기술'이란 말은 친구들에게 생소할 것 같아. ㉠ '녹색 기술'과 '청색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 '녹색 기술'과 '청색 기술'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그런 후에 나미브 사막의 풍뎅이를 모방한 장치를 '청색 기술'의 사례로 들어 설명해야겠어. 이때 ㉢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겠지. 발표 중간에는 ㉣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나와 친구들의 공통된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발표 끝부분에서는 ㉤ '청색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 당부의 말로 마무리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학생 1: 발표자 말대로 청색 기술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아.
 학생 2: 에어드롭 장치가 모방했다고 하는 나미브 사막의 풍뎅이의 수분 섭취 방식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
 학생 3: 청색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일까? 단점은 없는 것일까?
 학생 4: 얼마 전에 청색 기술의 사례로 흰개미 집을 모방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읽어 알고 있었는데, 발표 사례는 그와 동일한 성격의 사례로군.
 학생 5: 에어드롭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1m³ 부피의 대기에서 하루 11.5ml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자가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었다.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편향된 것은 아닌지 판단하며 들었다.
 ④ 학생 4는 발표 내용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들었다.
 ⑤ 학생 5는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점검하며 들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간의 대화

A: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반려 동물 학대와 유기 문제에 대해 보도했는데, 혹시 봤니?

B: 응, 나도 봤어.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

A: 맞아. 심각하지.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반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가고 있어.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점검하고, 반려 동물 보호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써서 신문에 투고하려고 해.

B: 좋은 생각이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줘.

(나) 초고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 동물도 많아졌다. 반려 동물의 학대와 유기 문제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 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 동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 동물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게 만든 제도로, 2014년부터 그 대상 동물을 반려견으로 한정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반려견을 제외한 다른 반려 동물들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아직까지 반려견의 등록률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동물 보호 센터는 유기된 반려 동물을 보호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될 수 있게 해 주는 기관이다. 동물 보호 센터가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경우, 유기된 반려 동물이 좋은 주인을 만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동물 보호 센터는 운영 여건이 열악하여 반려 동물의 유기나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반려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률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 보호 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6.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서 표현 행위이다.
- ② 독자의 반응을 토대로 내용을 조정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 ③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표현 행위이다.
- ④ 독자와 필자의 공동된 경험을 환기하여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행위이다.
- 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토대로 사회의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해 (나)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I. 통계 자료

1. 반려견 등록 현황(2015년)

| 구분 | 개체수 (만 마리) |
|-----------|------------|
| 등록 대상 개체수 | 180 |
| 등록 개체수 | 100 |

(단위: 만 마리)

2. 반려 동물 사육 가구의 동물종별 사육 현황(2015년)

| 동물종 | 사육 현황 (%) |
|-----|-----------|
| 개 | 85 |
| 고양이 | 25 |
| 기타 | 5 |

(복수 응답 포함 / 단위: %)

II. 신문 기사

동물 보호 센터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0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90% 이상이 민간 위탁 시설이다. 이들 대부분은 재정, 시설, 인력 등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들의 열의에 기대어 겨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전문가 인터뷰

“미국의 경우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이며, 실제로 처벌 받은 경우에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정도가 매우 미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람에 종속된 소유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반려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어 영역

- ① I-1과 II를 활용하여, 1문단에서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의 근거로 삼는다.
- ② I-1, I-2를 활용하여, 2문단에서 등록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의 범위와 반려견 등록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③ II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 센터가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④ III을 활용하여, 4문단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⑤ III을 활용하여, 5문단에서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8. ㉠을 위한 문구를 <조건>에 맞게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1.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2. 대구를 활용할 것.

- ① 당신의 마음이 열려야, 당신의 손길이 닿아야 반려 동물 유기와 학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 ② 반려 동물 복지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초록 불을 켤 때입니다.
- ③ 좋을 때만 반려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당신의 반려 동물과 눈을 맞춰 주세요.
- ④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반려 동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반려 동물
- ⑤ 동물 학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반려 동물 학대를 감시하는 보안관이 되어 주세요.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고 요청서]
 최근 빅 데이터 전문가가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지에 빅 데이터 전문가를 소개하는 글을 실고자 합니다.

[작문 계획]

- 처음
 -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관심 증대 ㉠
- 중간
 - 빅 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 ㉡
 -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수요 ㉢
 -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 ㉣
- 끝
 - 빅 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전망 ㉤

[초고]

빅 데이터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남긴 수많은 ‘디지털 흔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다루는 ‘빅 데이터 전문가’를 여러 매체에서 유망한 직업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 데이터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 궁금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빅 데이터 전문가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 가치를 ㉡ 창 안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일을 한다. 예를 들면, 드라마 시청자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남긴 메시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정보를 생산한다.

빅 데이터 전문가는 컴퓨터 공학과 통계학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인정받는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 빅 데이터 전문가들은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갖지 못하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빅 데이터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여러 대학에서 관련 전공 및 교육과정을 개설해 빅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는 것과 함께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빅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빅 데이터가 우리 ㉤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다녔지만 빅 데이터 시대에는 정보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빅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9. ‘작문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궁금해 하는’으로 고친다.
- ②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고안’으로 고친다.
- ③ ㉢: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하지만’으로 고친다.
-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⑤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삶’으로 고친다.

[11 ~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학생 A: ‘뱍씨’는 ‘벼’와 ‘씨’가 결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왜 ‘벼씨’가 아니라 ‘뱍씨’야?
 학생 B: 그리고 보니 ‘살’과 ‘고기’가 결합한 말도 ‘ㄱ’이 ‘ㅋ’으로 바뀌어서 ‘살코기’로 쓰이고 있어.
 학생 A: 그렇구나. 왜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자료]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ㅂ’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현대 국어의 ‘벼+씨→뱍씨’에서 ‘ㅂ’이 생겨나는 이유는 ‘ㅂ>ㅍ’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5세기에는 ‘ㅂ’의 어두에 ‘ㅂ’이 있었는데, 당시 ‘벼+ㅂ→벼ㅂ’이 만들어진 후 나중에 ‘ㅂ’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뱍씨’와 같은 어형이 생성되었다. ‘ㅂ>ㅍ’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ㅂ’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 복합어 속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현대 국어에서 확인된다.

15세기 국어에는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ㅎ’ 역시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단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ㅎ’ 종성 체언이었던 ‘술ㅎ’을 살펴보자.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술ㅎ+이→술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의 ‘살+고기→살코기’에서 ‘ㄱ’이 ‘ㅋ’으로 바뀌는 이유 역시 ‘술ㅎ>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ㅎ’ 종성이 뒤에 오는 ‘ㄱ, ㄷ, ㅂ’과 결합하여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술ㅎ’이 ‘고기’와 결합한 말이 만들어질 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었으므로 ‘살코기’와 같은 어형이 생성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의 ‘ㅎ’ 종성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살코기’ 외에도 ㉡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다.

11. 위 ‘대화’와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에서 ‘ㅂ’의 어두에 있는 ‘ㅂ’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군.
- ② 15세기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단일어에서 훗날 탈락하였군.
- ③ 15세기 국어의 ‘ㅎ’ 종성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겠군.
- ④ 현대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군.
- ⑤ 현대 국어의 ‘살코기’에서 ‘ㅋ’은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단어에 남아 있는 것이군.

12.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 —

- a. 휩쓸다: ‘휘-’와 ‘쓸다’가 결합한 말인데, ‘쓸다’는 옛말 ‘쓸다’에서 온 말이다.
- b. 햅쌀: ‘해-’와 ‘쌀’이 결합한 말인데, ‘쌀’은 옛말 ‘쌀’에서 온 말이다.
- c. 수평: ‘수-’와 ‘평’이 결합한 말인데, ‘수’는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d. 안팎: ‘안’과 ‘밖’이 결합한 말인데, ‘안’은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e. 들뜨다: ‘들다’와 ‘뜨다’가 결합한 말인데, ‘뜨다’는 옛말 ‘뜨다’에서 온 말이다.

| | ㉠ | ㉡ |
|---|---------|------|
| ① | a, b | c |
| ② | a, e | c |
| ③ | a, b | d |
| ④ | b, e | d |
| ⑤ | a, b, e | c, d |

13. <보기>의 ㄱ~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ㄱ.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 ㄴ. 언니가 빵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 ㄷ.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
- ㄹ. 나는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 ㅁ. 누나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 ① ㄱ과 ㄴ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②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③ ㄴ의 안긴문장은 ㄷ의 안긴문장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다.
- ④ ㄷ과 ㅁ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각각의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ㄹ과 ㅁ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국어 영역

14. <보기>를 바탕으로 ㄱ~ㅍ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오. / 이것은 책이 아니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요’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선생님의 설명: 제15항 [붙임 2]에서 설명하는 어미 ‘-오’는 하오체 종결 어미입니다. 이 어미 ‘-오’는 [오]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이오’로 활용할 때, ‘차(車)’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 ‘차이오→차요’와 같이 ‘-이오’가 ‘-요’로 줄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오’가 줄어든 형태인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와 그 형태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제시된 자료를 분석해 봅시다. 단, ㄱ과 ㅍ은 모두 말하는 도중에 상대 높임의 등급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ㄱ. 이것은 들판이오, 저것은 하늘이오.
 ㄴ. 선배: 고향이 어디니? / 후배: 서울요.
 ㄷ. (고향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 부산이오.
 ㄹ. 무얼 좋아하시오? 소설이오? 아니면 영화요?
 ㅁ. 무얼 좋아하세요? 소설요? 아니면 영화요?

- ① ㄱ의 밑줄 친 ‘이오’는 [이오]로 발음할 수 있다.
- ② ㄴ의 밑줄 친 ‘요’를 ‘이요’로 바꾸어 적을 수 있다.
- ③ ㄷ의 밑줄 친 ‘부산이오’는 하오체 문장에 해당한다.
- ④ ㄹ의 밑줄 친 ‘요’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이오’가 줄어든 형태에 해당한다.
- ⑤ ㅁ의 밑줄 친 ‘요’는 둘 다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15.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크다 [커, 크니]
 [I]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예 키가 크다.
 [II]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예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키우다 [...을] [키우어(키워), 키우니]
 크다 [II]의 사동사

- ① ‘크다’[I]과 ‘크다’[II]는 별도의 품사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이겠군.
- ② ‘크다’[I]과 ‘크다’[II]의 반의어로는 모두 ‘작다’가 가능하겠군.
- ③ ‘크다’[I]의 용례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크다’[II]는 사동사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군.
- ⑤ ‘크다’와 ‘키우다’는 모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 끝의 모음이 탈락하는군.

해설

①④③④①
③①①③②
③③④②④

1.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사회자’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언에서 각각 토의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사회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토의 배경을 제시하고 토의 안건을 소개하며 토의를 진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사회자’가 토의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토의 주제 범위 내에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③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토의 참여자 간의 감정 대립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사회자’가 감정의 대립을 중재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았다. ④ ‘사회자’가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⑤ 토의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2. [출제의도] 토의 순서에 따라 토의를 이해한다.

이 토의에서는 부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활동의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다. 부원들의 역할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으로 대안에 대해 판단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동아리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② ‘부원 1’과 ‘부원 2’의 첫 번째 발언에서 토론 위주의 동아리 활동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부원 3’과 ‘부원 4’의 첫 번째 발언에서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분석하며 토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부원 4’와 ‘부원 2’의 마지막 발언에서의 동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으로 역사 영화를 보는 것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3.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 발언의 특징을 이해한다.

‘부원 4’는 첫 번째 발언에서 역사 유적 답사를 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토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주장한 역사 유적 답사가 시간이나 비용에서 실행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생각을 바꾸어 역사 영화를 보는 입장으로 변경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은 ‘부원 1’의 말에 동의를 표하며 문제점을 인식하는 발언으로 과거의 문제 해결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에서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안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④ ㉣은 다른 대안 전체에 동의한 것으로 대안의 일부만 동의하거나 다른 대안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 ⑤ ㉤은 대안 선택의 판단 근거인 활동의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른 대안에 동의한 것이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전체로 내세운 것은 아니다.

4. [출제의도] 발표 준비 과정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청색 기술’에 대한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표 단계나 내용 등과 관련한 구상을 하였다. 그러나 발표에서 설명하려는 대상과 관련지어 발표자와 친구들의 공통된 경험을 환기하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발표를 시작할 때 ‘녹색 기술’과 ‘청색 기술’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② 발표 앞부분에서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녹색 기술’과 ‘청색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에어드롭 사진을 시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⑤ 발표 끝부분에서 ‘청색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청중들의 듣기 전략을 분석한다.

‘학생 1’은 ‘청색 기술’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발표자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의 생각에서 발표자가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하고 내용 추가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발표 내용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발표자가 언급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은 없는지 고려함으로써 편향된 내용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 ④ ‘학생 4’는 자신이 책에서 읽어 알고 있던 배경지식과 발표 내용을 관련지어 들었다. ⑤ ‘학생 5’는 활용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점검하며 들었다.

6. [출제의도] 작문의 특성을 파악한다.

(가)의 ‘학생 간의 대화’를 보면 글을 쓴 A는 반려동물이 학대받고 유기되는 것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글을 써 사람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반려 동물 학대와 유기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문제 상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드러내는 행위로, 예상 독자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으나, 예상 독자의 반응이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④ 독자와 필자의 공통된 경험을 환기하고 있지 않다. 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고려하거나 의사소통 양식을 정립하려는 것은 아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한다.

I-1은 동물 등록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등록 대상 개체수에 비해 등록 개체수가 적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I-2는 반려 동물 중 개 이외에 고양이나 기타 동물들의 개체수도 많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 동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한다.

<조건>에서는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글쓰기를 하라고 하고 있다. 첫째는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고, 둘째는 ‘대구를 활용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열려야, 당신의 손길이 닿아야’는 대구를 활용하여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반려 동물 유기와 학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를 통해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② 반려 동물 복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대구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당신의 반려 동물과 눈을 맞춰 주세요.’는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다. ④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⑤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대구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9.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학생의 ‘작문 계획’의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중간 부분에 제시된 ‘빅 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초고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수요’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여러 매체에서 빅 데이터 전문가를 유망한 직업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관심 증대’는 초고에 반영되어 있다. ② 빅 데이터 전문가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남긴 메시지를 분석하여 정보를 생산한다는 내용을 볼 때, ‘빅 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은 초고에 반영되어 있다. ④ 여러 대학에서 관련 전공 및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 때,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은 초고에 반영되어 있다. 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빅 데이터의 영향력이 커지며, 이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빅 데이터 전문가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볼 때, ‘빅 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전망’은 초고에 반영되어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수정 방안을 평가한다.

‘창안’은 ‘어떤 방안,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생각하여 냄. 또는 그런 생각이나 방안’으로, ‘부가 가치를 창안할 수 있는 정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또한 ‘고안’은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또는 그 안’으로, 역시 ‘부가 가치를 고안할 수 있는 정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의 ‘궁금한’은 ‘될 수 있는지를’이라는 문장 성분과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궁금해 하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③ ㉢의 ‘그래서’는 그 앞 문장에, 컴퓨터 공학과 통계학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 문장에 그러한 지식만으로는 인정받는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하지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은 빅 데이터를 다루면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내용으므로,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해 소개하는 글 전체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⑤ ‘에게’는 유정 명사에 붙는 조사로, ‘삶’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삶에’로 고쳐 써야 한다.

11. [출제의도] 국어의 변천을 파악한다.

‘ㅎ’ 중성 체언은 ‘슬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는 <자료>의 진술을 통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ㅎ’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훗날 탈락하였다는 진술과 훗날 단일어에서는 ‘ㅂ’이 탈락하였다는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올 수 있었다는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ㅎ’이 뒤에 오는 ‘ㄱ’과 결합하여 축약됐으므로 ‘살코기’의 어형이 생성된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어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a. '뜯다'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휩쓸다'의 어형이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b. '뜯'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헹쓸'의 어형이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d. '안흥'의 '흥'이 '뽀'의 'ㅂ'과 결합하여 '교'으로 축약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c. '수평'에서 'ㅎ' 중성 체언의 'ㅎ'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에 해당하는 예로 보기 어렵다. e. '뜯뜨다'에서 어두 자음군 맨 앞의 'ㅂ'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에 해당하는 예로 보기 어렵다.

13.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ㄷ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동생이'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오빠가'이므로 ㄷ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그러나 ㄹ의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주어는 모두 '누나가'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ㄱ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고, ㄴ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둘 다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ㄷ의 안긴문장은 안긴문장 속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나, ㄴ의 안긴문장은 안긴문장 속에 필수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다. ㉤ ㄷ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고, ㄹ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14.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이라는 체언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과 후배가 선배에게 대답하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ㄴ의 밑줄 친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ㄴ의 밑줄 친 '요'를 연결형의 '이요'로 바꾸어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ㄴ의 '이요'는 [이요]로 발음할 수 있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하오체의 종결 어미이므로, ㄷ의 밑줄 친 문장은 하오체 문장에 해당한다. ㉤ ㄷ에는 하오체가 쓰이고 있어, ㄷ의 밑줄 친 '요'는 '-이요'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영화') 뒤에서 줄어 쓰인 형태에 해당한다. ㉤ ㄹ에는 하오체가 쓰이고 있어, ㄹ의 밑줄 친 '요'는 둘 다 체언과 결합하여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5. [출제의도] 사전의 정보를 활용한다.

<보기>의 사전 자료를 통해 '크다' [II]는 주어만을 요구하지만 '크다' [II]의 사동사인 '키우다'는 주어 외에도 목적어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크다' [II]는 사동사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 동음이의어는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하는데, <보기>에서 '크다' [I]와 '크다' [II]는 하나의 표제어 안에 기술되어 있다. ㉡ '크다' [I] 뜻의 반의어로는 '작다'가 가능하지만, '크다' [II] 뜻의 반의어로는 가능하지 않다. ㉢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에서 '컸구나'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는 '크다' [II]의 용례에 해당한다. ㉤ <보기>를 보면 '크다'는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 '크-'의 끝의 모음이 탈락하지만 '키우다'는 어미 '-어'가 결합해도 어간 '키우-'의 끝의 모음이 탈락하지 않는다.